

한숲교회 책모임



7월의 책

사람을 안다는 것

우리는 타인이 사랑과 존중의 마음을 담아서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기를 바란다



우리 삶에서 관계로 인한 기쁨 만끽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시간

관계에 대하여

우리는 왜, 그리고 어떻게 타인을 이해해야 하는가?



서로를 깊이 알면 우리의 세계는 어떻게 넓어지는가?

공감

데이비드 브룩스는 전작 <두 번째 산>에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해 우리의 진정한 자아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완성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신작인 <사람을 안다는것>에서는 타인을 이해하는 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이며 관계는 도구가 아닌 목적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인을 깊이 이해하려고 할 때 타인에 대한 진심 어린 이해와 태도가 곧 우리의 품격을 만드는 것이며, 우리가 타인을 대하는 방식이 곧 나 자신을 드러내는 거울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타인과의 관계 설정에는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르트르는 <존재와 무>에서 우리는 타인의 시선 속에서 객체화되고, 나의 존재가 규정된다고 하였습니다. 타인의 시선이 나를 대상으로 만들고, 나의 자유를 제약하며, 나를 어떤 특정한 모습으로 규정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러한 타인의 시선은 때로는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유발하기도 하며, 나를 끊임 없이 타인의 판단과 평가에 놓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데이비드 브룩스는 타인은 나를 객체화시키는 존재라기보다, 내가 스스로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자 나의 내면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깨닫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성장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자기성찰에 대하여

타인과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성장과정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기

이해

상대방과 나의 내면의 벽을 허물고 서로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성찰과 이해입니다. 깨끗한 거울만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비추듯 우리 자신의 내면을 명확히 들여다보고 이해할 때 비로소 타인을 왜곡없이 바라보고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의 마음도 모르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모순일지도 모릅니다.

데이비드 브룩스는 자기성찰이란 단순히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을 넘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이해하고 더 나은 인격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자기성찰을 하기 어려운 이유는 자기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한 자아 인식은 자기 기만이나 합리화의 온상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의 감정과 시선을 내려 놓고 타인의 시선이나 객관적인 자아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침묵과 멈춤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자기성찰은 자기합리화도 자기비난도 아닌 자기이해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대하는 방식이 곧 나 자신을 드러내는 거울"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타인을 향한 연민, 이해, 존중의 태도를 가질 때 비로소 자신의 인간적 깊이를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는 시간

한숲교회 책모임

장 폴 사르트르

타인은 나의 지옥이다.

헨리 나우웬

경청은 영적인 환대의 한 형태다.

타인을 이해한다는 것

틀 안에 갇힌 자아를 넘어서는
존재의 용기

1. 우리는 타인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데이비드 브룩스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살아가는 존재이며, 우리의 자아는 고립된 개인으로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 다듬어지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타인과의 올바른 관계란 서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고 감당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인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단지 감정적인 투사(projection)나 해석의 착각일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2. 나는 일루미네이터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일루미네이터는 내가 아닌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소통할 줄 압니다. 또한 관심의 빛을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 그들 스스로가 더 크고 깊고 더 존중받는 존재라고 느끼게 합니다.

항상 일루미네이터이거나 디미니셔인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나도 모르게 일루미네이터가 되기도 하고 디미니셔가 되기도 합니다. 내 안의 일루미네이터의 모습이 드러나 다른 사람을 비추어 주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